

오월

이병일 (2012년 제8회 5·18문학상 수상작)

누이야, 혁명을 절규나 침묵으로 해석하지 말자 군인들 팔뚝에 돋은 힘줄이 도드라진 오월, 죽음을
탁발하는 누이들의 행렬이 길을 메웠다 그때 나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무릎은 깨져 피가 별처럼
고이고, 군화는 내 머리통을 밟고 지나가는데

구름이 해를 가리던 낮에 큰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목적 없이 와불이 되었다 돌맹이와 풀은 어둠과
햇빛과 상관없이 어둑어둑해지고 죽음은 살덩어리로 발견되었다 커튼이 쳐진 방 안의 귀머거리들은 큰
죽음을 모른다 작은 죽음도 잘 모른다

지평선의 목구멍에 걸린 해는 극락강 수면에 일몰의 저녁을 토해낸다, 알 수 없는 곡소리가 들리고,
구불구불한 강을 따라 노 젓는 시간만이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이름 없는 무덤을 찾아간다 큰 느티나무
그늘 아래, 작은 팽나무 아래의 새들이 퍼덕거리지 않는다 군인들은 계속 행군 중이고, 저녁의 낮이
새파랗게 질려간다

그러나 더 이상 밀려가는 벼랑이 없는 나는, 뱀눈그늘나비의 춤을 빌려와서 꿈을 꾸고 있는 세상이
있다고 믿기로 했다 내 몸에서 그림자가 엮일려진 날이기도 했고 꿈을 벗어나려고 하면 총 맞은 자리에서
똥은 피가 왈칵 쏟아지는 오월이기도 했다.

공포의 축제

이병일 (2012년 제8회 5·18문학상 수상작)

해와 달이 겹쳐질 때 공포가 온다

공포는 제 몸을 찢어 적막을 빚는다 적막은 북극곰의 꿈처럼 사납고, 뒤통수도 없이 아가리만 빛나고, 불현듯 핏을 듯 말듯 입맛을 다시는 영(靈)이 되었다

저승사자의 삿갓에 묻은 어둠이 아슬아슬 녹아내리는 붉은 한낮, 혼자 밥 먹는 식탁의 접시는 입을 적하니 벌리고 있다——허기와 허영으로 가득 찬 터널의 세계가 나는 여전히 궁금하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얼굴이 꽃처럼 찢어지는 불행을 즐기자 까마득히 보이지 않는 비명을 찾아나서는 보물찾기 여행을 하자 전생과 후생 사이의 악몽으로 잠시 널브러져 있자 작듯날 위에 올라 황홀하게 홀리는 춤의 세계로 떠나도 무방하다고 해두자

여전히 해는 없고 달도 없다 무심히 옆구리를 찌르고 가는 공포가 칼날만큼 차갑다 눈앞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고압전류의 더운 숨을 엿본 적이 있다——사육장에서 나온 똥개들이 양수 터진 흑염소의 피비린내를 맡았는지, 송곳니가 곤두서게 되었다 그렇그런 눈이 먼데를 더듬는 흑염소, 이승 한켠 바라보다가 저승으로 간다 맨드라미꽃밭 불타듯 버글버글 피는 저 불한당의 주린 입들에서 괴성이 쏟아진다 그날이후 나는 만져지지 않는 기억들을 공포의 축제라고 불렀다 맑은 날이었지만 염소에 뜯긴 풀잎들도 다시 자라나는 생의 기미를 엿보게 되었다

마그마

이병일 (2012년 제8회 5·18문학상 수상작)

총성을 결국 음악으로 듣는다,
나는 총알의 까맣고 붉은 흔적을 가지게 되었다
세상은 한 가지 사건을 덮으려
모든 것을 속였다 군인들은 우리의 말을 믿지 않았다

나는 적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기 위해
꽃꽂한 각오와 거룩한 혁명을 위해
차라리 목숨을 내던지겠다는 생각에 젖었으나
조금도 흥분하지 않았다
적에게 눈멀어 있던 날들이 지나가자
나는 죽어 있음이 살아 있음으로 여기게 되었다

두 눈이 들고양이의 푸른 눈동자로 빛났지만
도망가는 군인들이 초록 거품을 게워낼까봐
먹살을 잡던 숨이 지쳐 꽃잠에 빠져 들까봐
혹여 無等山이
내 이름을 불러보지만 얼굴이 떠오르지 않을까봐
오래 된 미래 속에서
나는 빨을 세우고 돌진하는 야크의 꿈을 빚었다
그 꿈으로 당돌하고 황홀한 죽음을 맛봐야 했다

그때 내 모든 신경의 열기가 마그마로 분출될 수 있다면
꺼멧게 짓밟히고 있는 머리통을 덮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적과 싸우다 나오는 길에
서로가 흘린 핏자국을 죽어라 쳐다보고
이성을 되찾기 전,
몸 아픈 건물들이 폭삭 주저앉아버리는
봄날을 기억하지 말자
그날엔 살고자 하면 죽었고, 죽고자 해도 죽었다
사랑과 자유조차 몸 밖으로 도망가는 하루였다
그때 나는 들끓는 죄를 가진 마그마로 굳어버렸다

혁명의 축제

이병일 (2012년 제8회 5·18문학상 수상작)

우리는 별들의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누군가 새벽의 밀고를 자행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탱크 위의 군인들이 우리를 정물화로 여겼다면, 그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지만 일요일의 공화국은 잠수함 속만큼 팽팽하고, 우리가 사수한 시청 위의 옥상은 전투 경험 없는 박명의 별로 가득합니다. 어둠을 젖은 눈으로 응시하며 우리는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투쟁과 혁명의 내부 속으로 발사한 총알의 머리통 짜개는 소리를 듣습니다. 검은 수염이 하얗게 변해가듯 혁명은 나를 두고 멀어져갑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들은 혁과 명의 신열을 음미하네 군화발자국에 입맞춤하러 나온 우리들의 식모, 누이들은 안개에 묻어 빛나는 사랑과 공포에 눌러 흙의 얼굴로 찢어지네

꽃의 군인들이 주둔하는 곳에서 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검은 눈을 뜨고 흰 뺨 위로 얼룩지는 기면 소리를 듣습니다. 저 광주천 위에 뜬 별들이 우리들의 눈물이 건조된 것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나를 적출하려는 꽃의 군화들을 격파하기 위해, 나는 고백하는 굴복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망치를 들고 기꺼이, 이 혁명의 축제 속에서 나를 건디기 위해 나를 던집니다. 혼자 듣는 죽음은 내 몸속에서 조용한 패배의 운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명의 시제

이병일 (2012년 제8회 5·18문학상 수상작)

히말라야 낭가파르바트를 위해 태어나는 절명이 있다는 걸 아는지?

오늘도 누군가는 추락을 위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영원한 죽음을 위해

초대장도 없이 단 한번 뿐인 청혼을 하려

드넓은 허무와 집한 시간 속으로 모여들었다

호기심의 눈발에는 발자국들이 얼음의 冠이 되어 빛나지만

아직도 운명을 점치는 태양의 눈동자는 철거되지 않았다는 거

기민한 자는 낭가파르바트의 바람이 견고한 화폭인 줄 알았으나

오로지 새의 이름으로만 통행이 시작된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

한 계절을 열고 다시 한 계절을 닫아가는 시간

발이 딛는 얼음의 사금파리들이 갈증의 몸을 깊이 찌르고,

절명은 우연히 별처럼 달고 다닌다는

심장 속으로 방문했다

발목으로 산의 기운을 모으는 절박한 세르파* 족속의 새는

그해 여름, 아주 잠깐 최후의 추억을 맛보기 위하여

절명의 시제에게 청혼 하였는지

칼날 능선 맨 위쪽에 있거나 아래쪽에 있는

새의 몸 밖 벼랑은, 자살인지 타살인지 누구도 답해주지 않는 함구의 풍경으로

최초의 울음을 찾아주는 기미의 순응자를 유혹하고 있다

오늘도 녹슨 나침반이 떨리듯 다시 얼어버리는 새의 눈꺼풀은

번쩍번쩍 빛나는 노을 속에서

볼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찬 곳을 생각에 잠긴 척 보고 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차디찬 고요를 뺏뺏하게 간직하고 있다

* 산악인 고미영의 별명

저승으로 가는 유서

이병일 (2012년 제8회 5·18문학상 수상작)

이 세상 비밀을 탐지하는 꽃이 있다
내가 나를 잊어버리기 전,
과거와 미래의 진실이 내려앉는다
오월의 햇빛이 가시지 않는 탓이다

베레모를 쓴 조용한 봄이 와서 누이를 데리고 사라졌다고 했다 푸른 제복을 입은 사나이들이 지프차에
신고 가 강간을 했고 참호 속에 묻었다고 했다 그때 은사시나무 앞에 이는 바람이 그걸 보고 은박지처럼
떨었다고 했다 급기야 박새와 곤죽박이는 비명과 함께 똥오줌을 지렸고, 낮달은 눈을 질끈 감았다고 했다

나는 큰 길의 햇빛 속에서 죽음을 배웠다 누이의 증오는 적을 맞아 싸우라는 자명한 진리가 되지 못했다
이젠 뼈와 살이 으스러진 혁명은 모가지 툭툭 꺾는 동백나무 숲에만 있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죽음이 독버섯처럼 숨어 자라는 광주에서
피안을 찾는 무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인내와 용기는 죄 없는 말만 골라서
적에게 불굴의 고투가 담긴 밀지를 보냈겠지만
땅에 넘어진 자는 그 땅을 짚고 일어서지 못했다
백골이 된 나는 영원히 몸이 피로할 것이기에
군용 트럭이 보이는 네거리에서
호화로운 화관을 짓는 민들레꽃이 되었다
오월의 햇빛 속에서 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분명한 사건들을 기록했다
그걸 저승으로 가는 유서로 사용하게 되었다